

의원칼럼



이 중 호 포천시의회의원

경기북부권에 위치한 포천시는 서울(서울도심 42km, 경계 30km)에 인접해 있으면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관광과 휴양이 병행된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 전원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국도43호선으로 집중되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국도43호선의 통행속도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15km/h 정도로 교통혼잡이 아주 심각하다.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광역교통망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확정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과 최근 중앙정부를 상대로 광역철도 및 지역공항 유치에 대해 포천시가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다.

해 지상버스의 도입은 물론 농촌지역의 공영버스 운행노선 확대와 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한 정책배려도 요구된다. 또한 최근 자동차 수요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의 공간도 확보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차정책은 폭발적인 자동차 수요에 비해 주차장의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에세이 56

성품(性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Character Above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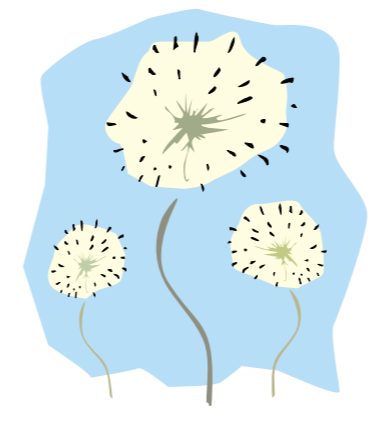
이 요 연 영학초등학교 교장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핵심은 창의성교육과 자기주도성교육이며 이는 인성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이 결국 인성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한 책 제목이 '성품(性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Character Above All)'였다. 대통령 후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해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를 모른 채 걸모습에 홀려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대통령 의자에 시한폭탄(時限爆彈)을 장치해 놓은 것과 한가지라는 말이다.

에 오른다고 여겼던 그 시절로선 놀랄만한 발언이었다. 3000명의 공자의 제자 가운데 스승한테서 이런 칭찬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중공(仲弓)이다. 공자는 임금이 될 만한 중공의 자질(資質)로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귀한 손님 대하듯 하고, 자기의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오래 가슴에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는 마음에서 훌러벌러 쫓아내는 성품'을 들었다.

2500년 전 공자 시절과 지금, 정치의 원리(原理)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썩은 나무에 어울리지 않는 큰 인물을 억지로 새기게 되면 나무를 크게 어지럽히고 만다는 그 원리다.



이해조문학제 - 독후감 공모 - 포천의 문학·문화인의 주축이 된 이해조 문학회는 동생 이해조 선생의 문학 정신과 계몽사상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일반 시민과 대학생, 각종·고교 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특별기고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출범 이 주최한 한국사회공헌대상에서 2006년도에는 특별상을, 2007년도에는 공공서비스부문 대상과 노동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하였습니다.

